

순천 시립청소년교향악단 폐지 갈등

시 "예산 낭비·실익 없다"…음악영재 아카데미 운영 등 대안 제시
단원·학부모 거리음악회 열고 반대 서명…시의회 27일 여론 수렴

순천시가 예산 낭비를 이유로 시립청소년교향악단 폐지를 추진하자 단원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보도 자료를 내고 "2013년 4월 창단된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2021년부터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행정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향악단을 폐지한다"며 "대신 청소년 대상 '음악영재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학교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교향악단은 당초 80명으로 구성됐으나, 현재 인원이 줄어 지휘자와 단무장, 지도교사 12명, 단원 49명 등 총 63명이다. 교향악단 대상은 9~24세 청소년이며, 올해 예산은 3억8000만원이다. 단원 49명 중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학생은 10명에 그치고, 이 중 순천지역 학생은 4명이다.

교향악단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단원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순천시청 앞에서 교향악단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거리음악회를 열었다. 15일에는 조례호수공원에서 거리음악회를 열어 시립교향악단 폐지 반대 서명을 받았다. 반대 서명에는 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2018년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인형'을 전국 연주했고, 지난해에는 구스타프 말러 1번 전 악장을 연주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며 "짚은 단원 교체로 실력이 낮다는 순천시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천시는 예산 문제와 짚은 단원 교체로 인한 연주실력 저하 등 실효성이 낮아 교향악단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교향악단을 폐지하는 대신 음악영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한다"며 "일몰 사업에는 포함돼 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오는 27일 순천시청에서 시립청소년교향악단 폐지와 관련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의 시립청소년교향악단 폐지 방침에 반발한 교향악단 단원들이 지난 15일 조례호수공원에서 항의 차원의 거리음악회를 열었다.

지자체 첫 '순천형 출산장려휴가' 신설

시, 출산 후 1년 내 30일 특별휴가 사용 조례안 28일 공포

순천시는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를 신설,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출산장려휴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조례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해 직원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기념품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다. 또 둘째자녀 출산 직원에게는 100만 원을, 셋째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별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 화훼농가 돕기 꽃 나눔 캠페인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꽃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순천시청 앞에서 연 이 날 행사는 졸업식·입학식 취소로 큰 피해를 입어 화훼농가를 돕고자 장미꽃 1000송이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화훼농가의 위기 극복에 동

참하지는 취지로 마련됐다. 순천시지부장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발생해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이라며 "순천지역 화훼 농가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형 마을정원 만든다

저전동 인근 담장 낮추고 문간방 허물어 조성...내일까지 신청 접수

순천시가 도시재생형 마을정원을 조성한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일반근린형 사업 대상지인 저전동(3·4동) 인근에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형 마을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형 마을정원'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일석 속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담장을 낮추고 문간방을 허물어 정원을 만들거나, 골목길·옥상·건물벽면 등 주민 생활공간에 공동체 정원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마을 정원을 만드는 공간은 공유지 뿐 아니라 사유지까지 포함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은 21일까지 저전도시재생현장센터를 방문

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면 개별적인 전문 가드너의 도움으로 직접 정원을 디자인할 수 있고, 현장 시공업체와 함께 정원을 만들고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

또 국내·외 정원 관련 행사에 수상경력이 있거나 조경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원을 디자인하거나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정원작가로도 참여할 수도 있다.

양호정 순천시 도시재생과장은 "마을정원 만들기는 주민들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골목길 정원 상상도.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특별법 5월 22일 종료

순천시는 19일 건축물 공유토지 문제를 안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분할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22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5월 종료를 앞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은 여러 법률에 얽혀 분할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눠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이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아파트 유치원부지도 포함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토지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는 현재까지 80여건을 신청받아 처리했다.

순천시관계자는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